

9. 집을 버려야 사는 1.4 후퇴, 그리고 붓집 속의 감참외

미아리 눈물고개~

임이 넘던 고개 ~

요즘은 트로트가 대세라 전화벨 소리를 송가인의 '미아리고개'로 바꿔 놔더니 목멘 소리로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가 새벽잠을 흔들었다. 새벽에 듣기에는 좀 거북해 열린 전화기를 들었다. 새벽잠을 깨우는 송가인의 갈라진 목청을 겨우 잠재우고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뭐랄 것도 없이 정제 안 된 평안도 사투리로 대뜸 따지고 들기 시작했다.

- 거, 박물이든 감참외 정도는 있겠소?

- 그, 글썄요?

내 기억으론 감참외는 소설가 김유정의 '봄봄'이란 소설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을 정도였지 아직 박물관에 감참외 씨앗은 없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을 가진 '봄봄'의 주인공 점순이를 설명하는 데 김유정은 참외 중에 제일 맛있다는 감참외를 끌어다 쓴 것이다. 아마 김유정이 먹어 본 참외 중에는 맛이 으뜸이었고, 주변의 여자 중에는 점순이가 제일 예뻐던 모양이다. 그래서 늘 궁금했던 소설 속의 참외였다.

없는 것을 눈치챈 그는 날카로운 음성과 비꼬는 듯한 대꾸로 거들먹거리며 우쭐하고 있었다.

- 그래? 알겠네.

- 아 잠깐만요.

전화를 끊으려는 태세였다. 나는 뻔대고 우쭐대며 들어가는 전화기 목소리를 급하게 붙잡았다. 근래 토종참외라 해서 수집된 것이 몇 점 있었는데, 개똥참외, 성환 참외, 개구리참외, 사과참외, 깎치참외 등이 있었지만,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탐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은 저 수지를 막으면서 없어졌던 '대흥참외'라고 예산군 대흥면이 주산지였던 참외를 찾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참외가 얼마나 컸던지 지게의 허리세장을 넘어 지겟가지에 걸칠 정도라 했으니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나 근처 마을을 샅샅이 뒤졌고 유전자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찾고 있었으나 아직은 빌미조차 보이지 않던 차에 이미 일제 강점기에 김유정 작가가 맛본 참외라는 데 그것이라면 애기가 달랐다.

- 왜 그러쇼?

- 선생님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땡연하지비.

- 그럼 저희 박물관에 몇 알만이라도 기증하시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흥정이 아침 내내 벌어졌다. 마침내 그는 조건부 허락을 했다. 박물관에서 쓸모 있는 씨앗이나 귀한 씨앗이 있으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면 바꿔 주겠다고. 사실 박물관에 취재하러 오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으로 묻는 말이 그것이다. 귀관에서 제일 귀한 씨앗이 무엇이오? 그러나 씨앗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지 귀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씨앗 하나를 심으면 수십 개가 매달리고 이 씨앗은 다음 해 밭 한 뼛기를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을 설립할 때 가장 애를 먹은 것도 이 부분이었다. 내년에 다시 심으면 또 나오는 데 어떤 가치나 희귀성을 가지고 유물을 인정하냐는 것이었다. 씨앗이 귀하다는 것은 당장 없어질 것을 말함인데, 없어진 것은 이미 귀한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다. 이 말은 씨앗이란 굳이 따지고 보지 않더라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그런 말을 설명하기도 전에 조건을 던져버리고 끊어버린 전화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한 끝에

은조랭이라는 벼 한 종과 복어 콩, 어른들이 좋아할 적 상추 한 종을 가지고 당진으로 향했다.

그는 은퇴하고 조그만 아파트의 경비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애초에 내게 감참외를 줄 요량이 아니었다. 어쩌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몽그적거리기 시작했다. 자꾸 판청만 피우기 시작했다. 토종 씨를 닮았다. 아니 이 양반이 실향 60년이라더니 벌써 충청도 사람이 다 됐나? 그는 영락없는 충청도 사람이 다 돼 있었다. 사람이나 종자나 한 지역에 뿌리 잡으면 그 지역과 문화에 적응하며 토착화되는 모양이다.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성질 급한 나는 온 김에 그냥 씨앗이나 주고 오자며 가지고 간 씨앗을 내놔다. 그러자 다른 것은 제쳐 두고 그는 벼씨에만 관심을 가졌다. 익숙했던 모양이었다.

- 이게 무슨 벼씨요?

- 은조라는 겁니다.

- 그렇지비! 보긴 내가 잘 봤잖겠소?. 은조랭이가 맞제비.

그는 은조 벼를 은조랭이로 불렀다.

그는 은조 벼를 보자마자 몽그적거리던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돌변하는 것을 지나 눈물까지 글썽이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 동안 벼 까끄라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더니 몽곳이 눈을 내리깔고는 애써 글썽이던 눈물을 누르고 있었다.

인연이란 게 그런 거였다. 나는 토종 씨앗을 놓고 그가 원하는 귀하다는 게 무엇인지는 대충 짐작은 갔지만, 한참을 고심하다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다. 콩은 생김새가 양증맞고 괴이한 복어 콩을 택했고 상추는 진액이 톡톡한 적상추를 택했다. 그리고 은조 벼를 택했는데, 그 이유는 단순했다. 은조벼를 유전지원센터로부터 분양받아 심은 첫해에 이삭이 패고 느낀 감동을 기억해 냈다. 은조라는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벼 까끄라기가 은빛이어서 벼가 뻗을 때 바람이라도 불면 살랑거리던 그 은빛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 왜 그러세요?

- 그냥 참외 씨나 가져가쇼.

자신의 눈물을 보이기 싫었는지 찾던 참외씨나 가지고 가라는 투였다. 그가 숨겨둔 참외씨를 가지러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 벼가 아름다워서 눈물이 글썽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다른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간파했다. 그의 글썽임과 짓누른 눈물의 틈을 파고들었다. 나도 내놓은 은조 벼를 다시 거둬드리는 시늉을 했다.

- 뭘 일인데요?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6.25가 벌어지고 다들 피난을 떠났는데, 늙은 할아버지의 **땅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일찍 남한으로 피신하지 못한 아버지는 1.4 후퇴 때야 돼서야 보따리를 쌀 수 있었다. 위에서는 중공군이 쳐내려오고 국군의 후퇴 길은 바람보다 빨라 한 발이라도 먼저 가려면 피난길에 붓짐을 줄여야 살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할아버지 붓짐 속에는 씨앗 몇 종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은조랭이 벼씨요, 그리고 감참외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메마른 왕골자리 씨가 한자리를 차지했었다.

듣고 보니 은조랭이 벼와 감참외는 부자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지주로 누렸던 별다른 호사 중의 한 품목이었으니 그분의 과거 유희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진에 자리를 잡은 뒤 은조랭이는 할아버지의 고집과 함께 고래실논에 왕골과 함께 뿌리를 내리게 됐고, 텃밭의 감참외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르며 쇠주를 마시는 아버지의 향수를 달래주는 유일한 안주가 됐다고 한다.

통일벼가 나온 뒤로도 왕골을 심던 고래실논 귀퉁이에 판을 내어 은조랭이를 심어 몇 뒷박이라도 털어서 할아버지 제상엔 꼭 올려 왔는데, 경지정리와 함께 왕골이 없어지면서 슬그머니 은조랭이 씨종자조차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죄스러웠는데 이제야 은조랭이를 보니 눈물이 돌았던 것이다.

그리고는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홀연히 사라졌다가 한참 후에야 나타났다.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눈가엔 아직 별겉게 달아오른 홍조가 남아있었다.

그 편지 봉투 속에는 감참외 씨앗이 10여 개 있었다. 겉봉투에는 2017년에 받은 씨라고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벌써 1년이 지난 것이었다. 박과의 씨앗은 상온에서 길어야 2년 정도가 한계였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이제는 그만 심어야겠다는 것이었다. 나이도 먹었고, 심을 땅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이웃에 주자니 심기가 워낙 까다로워 모두 손을 내져는다는 것이다.

일단 발아가 쉽지 않았다. 다음에는 다른 참외는 익으면 노래지는 데 반해 감참외는 그냥 퍼렇게 있으니 익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익었을 때 배를 가르면 감처럼 붉은 속이 나온다. 이 붉은 속은 또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알 수가 없지만 먹기까지가 힘들다 보니 까짓거 맛을 포기한다. 익은 듯하여 따보면 설었고, 설었다 싶어 며칠 놔두면 벌써 익어버려 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유통기한은 왜 그렇게 짧은지 익고 나면 곧바로 쫄기 시작하여 때를 놓치면 그 맛있는 감참외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없었다. 먹어 봐야 익었는지 가름이 가니 또 익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는 감참외, 김유정 작가가 점순이를 감참외에 비교한 속셈을 알 만도 했다.

그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씨앗을 통째로 주었다. 벌써 2년이 지났으니 싹틔우기를 장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가 박물관에 전화를 건 이유는 조금 알 수 있었다. 박물관에서라도 보관하면 씨는 잃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수집한 감참외다.

그가 바란 대로 그렇게 얻은 그 감참외 씨를 간신히 발아기에 넣어 발아시켜 후계 종을 만들어 지금은 박물관 냉동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 언젠가 할아버지가 감참외가 생각나 다시 전화 오기를 기다리며.

미아리 눈물고개~

임이 넘던 고개 ~

오늘도 전화기는 계속 울리는데, 울릴 때마다 피난민들이 울며불며 미아리고개를 넘던 붓집 속의 씨앗을 생각한다.